

민족의 노래...길이 길이

— 흥난파 선생 30주기에 붙여 —

나 운 영

한국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우리의 악성 흥난파 선생은 관현악 지휘자, 작곡가, 음악교육가, 음악평론가 등 음악 전반에 걸쳐 문자 그대로의 선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창작소설을 비롯하여 번역소설 역가譯歌, 작가作歌 등을 수 없이 남겼으니 놀랍게도 문필가를 겸했던 천재였다.

그러나 나는 선생의 이 모든 업적 가운데 작곡활동을 가장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1백여 곡이 넘는 동요를 작곡하였기 때문에 단지 동요 작곡가로만 알려져 있는 듯하나 이밖에도 「조선가요 작곡집」과 바이올린 독주곡, 관현악 조곡 등이 있으니 기악곡까지도 작곡한 한국 최초의 대 작곡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조선가요 작곡집」은 영산시조靈山時調에 작곡한 15편인데 대체로 작은3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간주가 한번 또는 두 번 들어있어 분명히 동요나 창가에서 벗어난 가곡으로서 예술 가요의 냄새가 은근히 풍기는 걸작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금강에 살으리랏다>, <봄 처녀>, <장안사> 등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선생의 작품에서 민족적 향기를 맛볼 수 있다. 생각컨대 한국에서 정경화 같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흥난파 선생 이래의 전통이 계승되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생의 바이올린 연주가 정경화 양에 의해 계승된 것과 마찬가지로 작곡에 있어서도 선생의 뒤를 따를 만한 천재가 나와야겠다.

흥난파 선생의 30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작곡가로서의 선생을 재인식하는 한편 그 유업을 계승함으로써 음악 중진국으로서의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해야겠다.



<1971. 8. 28 서울신문>

(부록) 70년대의 한국·한국인 (II)

문: 귀하 자신의 70년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답: 작품을 통한 국제교류에 앞장서야겠다. 우선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작품을 가지고 국제교류를 해야겠다.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 또는 외국작품의 모작 내지 부분적인 표절 혐의를 받지 않을 작품, 더욱이 외국 2 세적인 작품을 가지고 어찌 국제교류를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작품을 외국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나의 작품을 가지고 직접 해외에 나가서 지휘, 연주함으로써 민간 외교사절의 구실을 해야겠다. (월간 중앙)